

지역 상장사 상반기 25곳 중 21곳 흑자

코스피 순익 전년비 29% ↑...매출 89%는 한전이 견인

코스닥은 39% 증가...부채비율 29%로 전국 절반 수준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대폭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016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15사)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10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9.22%, 39.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총매출

액은 32조3388억원으로 전년 대비 0.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4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0%, 순이익은 2조7137억원으로 29.22%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공사(89.1%)를 제외할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01%, 3.01%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순위로는 한전 다음으로 금호타이어(1조2096억원), 금호산업(5769억원), 한전KPS(5719억원), 조선내화(2289억원),

대우이텍(1804억원), 대우신소재(1143억원), 광주신세계(1033억원) 순이다.

영업이익은 한전 다음으로 한전KPS(737억원), 금호타이어(588억원), 광주신세계(272억원), 금호산업(143억원), 조선내화(121억원) 순이다.

기업의 경영 안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 말 대비 5.98%포인트 낮아진 93.58%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70.9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전체 대상기업 15사 가운데 적자기업은 세화아이엔씨, 보해양조 등 2개사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상반기 총 매출액은 2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3%, 순이익은 165억원으로 39.05% 증가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63%로 지난해 상반기 6.21%보다 1.42% 늘었다. 또 매출액 순이익률은 6.67%로 지난해 5.29%보다 1.38% 증가 호조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전국 영업실적 매출액증가율 1.20%보다는 높고, 순이익증가율 7.5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부채비율은 29.16%로 전년 말 대비 10.29%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평균(60.1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대상기업 10사 중 8사가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반면 제이웨이, 행남자기 등 2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2.16 (-14.08)

금리 (국고채 3년) 1.23% (0.00)

↓ 코스닥 688.15 (-8.05)

↑ 환율 (USD) 1126.50원 (+8.90)

삼성 세탁기 기술 유럽 소비자 유혹

다음달 獨 가전박람회 참가...콤보·슬림 등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다양한 컨셉의 '에드위시' 신제품으로 유럽 소비자 유혹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오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6'에서 에드위시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삼성 에드위시는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도어 상단에 작은 창문인 에드윈도우를 탑재했다. 사용자는 세탁, 행균, 탈수 등 작동 중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에드윈도우를 열어서 언제든 세탁물을 추가할 수 있고, 손빨래를 해야 하는 세탁물을 행균 또는 탈수 과정에 투입할 수도 있다. 또 기존 드럼세탁기의 세제 투입구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던 캡슐형 세제나 시트형 섬유 유연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제와 세탁 보조제도 편리하게 투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IFA 2016'에서 하나의 세탁기에 세탁과 건조 기능을 모두 갖춘 '콤보'와 도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슬림한 디자인의 '슬림' 등 에드위시 신규 라인업을 공개한다.

콤보 라인업은 한 대의 에드위시로 세탁과 건조를 모두 끝낼 수 있어 건조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고, 세탁 후 젖은 빨래를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에어워시' 기능이 새로



적용돼 물과 세제 없이도 옷감에 배인 냄새를 없애거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슬림 라인업은 풍부한 거품이 세탁물 사이사이에 침투해 효과적으로 세탁하는 기술인 '에코 버블'을 탑재해 찬물에서도 깨끗한 빨래가 가능하다. 슬림한 스타일에도 기존과 같은 용량을 유지하고 좋은 내구성, 적은 작동소음,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장점으로 한다. 또 삼성의 '스마트 체크' 기능이 탑재돼 제품의 문제를 알아서 탐지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다. 김대성기자bigkim@

원화가치 상승 27개국 1위

'마이너스 행진' 수출에 악재

지난달 물가와 교역 비중을 감안한 원화의 실질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 세계 주요 27개국 중 정상률 1위를 기록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과 국가신용등급 상승,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 등에 따른 것이지만,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엔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실질실효환율 집계를 보면 한국의 7월 실질실효환율(2010년 100 기준)은 116.93으로 전월보다 2.64% 올랐다.

이는 BIS가 1964년부터 자료를 추적해 실질실효환율을 발표하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2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연합뉴스

통계청 '어린이 통계교실' 호평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이 지난 19일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조사 응답자 자녀를 초청해 '2016 찾아가는 어린이 통계교실'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통계교실은 개방·협력의 정부3.0 기조에 따라 어린이 통계교육 프로그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예술활동과 연계해 통계와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체계적인 교육운영 노하우를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최초의 시도로서, 반응이 매우 좋아 호남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은 진로체험과 연계한 통계교실 운영으로 '2015년 교육기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공공기관 교육기부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북적북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주)제일좋은전람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처음으로 연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6'이 지난 21일까지 3일동안 1000여명의 예비창업자가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박람회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걸작 떡볶이'와 세계 최대 여성전용 피트니스인 'Curves', 키즈&맘스 카페 프랜차이즈 '꼬마 대통령' 등 60여개 업체가 참여 150부스 규모로 알차게 진행됐다. <주)제일좋은전람 제공>

미래 전력기술 트렌드 광주 총집결

한전, 11월 2~4일 DJ센터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오는 11월 2~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6)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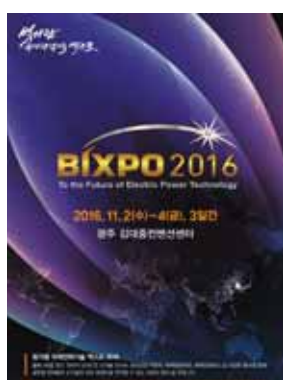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BIXPO 2016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소개와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허브를 구축하는데 한국전력의 역할을 제고하고 미래 전력기술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전력 분야 신기술 전시회·국제발명대전·국제컨퍼런스·최고기술책

임자(CTO)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세계 50개국의 전력·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과 산학연 등의 전문가 4000여명이 참석한다. 전력분야 신기술 전시회는 에너지 신산업 전시, 신기술 전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박람회, Inno-Tech Show로 크게 4분야로 나뉘어 전시될 예정이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전기 및 에너지 체험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행사에서는 국내외 산·학·연이 참여해 ICT, 디지털변전소, HVDC, DC배전 등 미래 전력기술을 교류하는 국

제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하고 30개국 300여명의 해외전력사 및 기업 CTO들이 참여하는 포럼도 진행된다. 조원익 한전 사장은 "전력 분야 기술 교류의 장(場)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자리로서 글로벌 톱3 에너지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늦더라도 더 많이...연기연금 신청 급증

지난해 1만4464명...4년새 13배 늘어

최근 들어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조금 늦더라도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고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 2011년 2034명 등에 불과했지만, 2012년 7763명으로 경종 뛰었고, 2014년 8475명에 이어 2015년에는 1만4464명으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5월 현재까지 벌써 6228명이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2015년 7월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하면 조금 늦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노후를 대비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 · 多
즐겁게 · 樂
모이자 · 房

교육일시

-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경 료 무료

신청문의

-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 청다락방

회기	일 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독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